

韓·佛 협력강화 위한 「프랑스 첨단 기술전」

— 항공 비롯한 다양한 첨단산업 기술 선보여

프랑스 첨단기술 관련업체들의 한국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한국 기업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전시회가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프랑스 100여 개 기업들이 참가한 이번 「프랑스 첨단 기술전」에는 화학, 제약, 통신, 건설, 컴퓨터 및 교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신제품과 신기술이 선보였다.

정부 산하기관인 프랑스 해외전시위원회에서 매년 세계 각국을 돌며 개최하는 이 전시회는 올해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열려, 1993년 한국의 고속철 시스템 공급업체로 프랑스의 GEC Alsthom사가 선정된 후 강화된 韓·佛 기술교류 증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서울 전시회는 지난 3월 김영삼 대통령의 방불 기간 중 정부차원의 기술협력 및 양국 기업의 교류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후 구체화된 것으로 산업설비, 화학 및 제약, 항공 산업, 자동차 설비 및 부품, 교통 및 운송, 전자 및 컴퓨터, 환경산업, 석유, 가스 및 원자력, 의료 및 생명공학, 건설 및 토목공학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했다.

프랑스는 현재 우리 방산업체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점차 협력과 기술교류를 증대시키는 과정에 있다.

아에로스빠시알(Aerospaiale)사는 Airbus, ATR 및 우주선 발사용 장치인 Ariane을 포함하여 다양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제품을 전시하였으며, 자회사인 유로콥터(Eurocopter)사도 헬기 신모델을 선보였다.

닷소(Dassault)사는 항공공학, 전자공학, 컴퓨터 장비 및 통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을 소개했으며, GEC Alsthom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TGV 기술을 선보였다.

개막 기념사를 하는 도미니크 페로 주한 프랑스 대사



슈퍼푸마와 DAUPHIN 헬기 모형을 전시한 유로콥터



AS100과 A321 항공기 모형을 전시한 아에로스빠시알사



라파엘과 알파젯 모형을 전시한 닷소사



UTC, 제3차 韓·美 기술협력워크숍 개최

— “21세기를 향한 기술의 세계화”를 주제로

美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社は 지난 7월 12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韓美 기술협력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1세기를 향한 기술의 세계화”란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社 외에 국내 여러산업계의 대표자, 대학교, 연구기관, 정부기관, 그리고 여러 외국기업들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들이 다수 참가하였다.

이번 워크숍에 참가하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社의 사업부에는 캐리어(Carrier-냉난방설비 전문업체), 오티스(Otis-엘리베이터), 프랫 앤 휘트니(Pratt & Whitney-항공기 엔진), 시콜스키(Sikorsky-헬기) 및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연구소(United Technologies Research Center)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프랫 앤 휘트니社は 항공 우주 및 산업용 개스터빈 엔진 제조업체로 삼성항공, 대한항공과 기술 교류를 하고 있으며 한국전투기사업에도 엔진을 공급하고 있다.



헬기 전술항법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는 시콜스키사의 샘가르보(Sam Garbo)

시콜스키社は 세계 최대 헬기 제조 업체로 우리軍에 블랙호크를 공급하였다.

에드워드 프란시스(Edward Francis) 시콜스키 한국사업 담당 부사장은 “이번 워크숍은 1992년 이래 세번째 개최되는 기술협력 워크숍으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社의 여러 사업부와 한국 관련기관들과의 상호 유익한 협력을 통하여 개발 잠재력이 뛰어난 핵심기술들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사의 목적을 밝혔다.

「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의 국방」책자 발간

— 과감한 자료 공개로 연구활동 활성화 기대

국방부는 미래 국방정책의 방향과 국방의 현실좌표를 분석함으로써 국방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균형적인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여 범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국방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의 국방」책자를 발간하였다.

軍, 國防研, 육군사관학교, 國大院 등에서 전문요원 10여명이 4개월간에 걸쳐 연구한 내용을 담은 이 책은 일반적인 홍보책자의 설득차원이 아니라 국방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논문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국민 보다는 여론선도계층 즉, 언론인, 정치인, 학자 등을 주요 독자계층으로 군사전문적인 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자료를 과감히 공개하여 일반학계의 국방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방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